

축구

6

2020년 4월 17·18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골과 도움으로 환상적 조합을 이룬 K리그 최고의 짝꿍 데얀(오른쪽)과 몰리나가 골을 합작한 뒤 포옹하고 있다. 2011~2013시즌 FC서울 소속으로 두 사람은 21골을 합작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최고의 짝꿍은 21골 합작 ‘데몰리션’

(데얀+몰리나)

이동국 골 최다 도움은 ‘에닝요’

축구의 꽃은 골이다. 하지만 그 골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팀플레이가 유독 강조되는 게 축구다. K리그에서 골과 도움으로 환상적인 조합을 이룬 짝꿍은 누구일까.

외국인선수 데얀(대구)과 몰리나(콜롬비아)가 최고로 꼽힌다. 이들은 FC서울 시절 ‘데몰리션(데얀+몰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데얀은 2008년 서울에 입단했고, 몰리나는 2011년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둘은 첫 해부터 환상적인 콤비였다. 데얀이 기록한 통산 189골 중 도움이 기록된 게 132골인데, 그 중 몰리나와 합작한 골이 무려 21골(2011년 6골+2012년 12골+2013년 3골)이다. 몰리나도 통산 도움 69개 중 21개가 데얀의 골을 도운 것이다. 이 둘의 합작 골은 K리그 통산 최다 기록이다.

그렇다면 K리그 통산 최다 득점자인 전북 현대 이동국(224골)의 골을 가장 많이 도운 동료는 누구일까. 이동국이 도움을 받은 것은 158골이다. 그에게 ‘반상’을 가장 많이 차려준 동료는 브라질 출신 에닝요였다. 몰리나와 함께 K리그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린 에닝요는 2009년 전북에 합류해 6시즌 동안 이동국과 14골을 합작했다. 다음으로는 최태욱과 이재성이 나란히 8개, 루이스가 7개, 레오나르도, 박태하, 로페즈가 각각 6개씩 이동국의 골을 도왔다.

K리그 통산 최다 도움 기록을 보유한 수원 삼성 염기훈(106개)은 어떤 동료를 가장 많이 도왔을까. 수원에서 호흡을 맞춘 브라질 출신 산토스다. 2010년 제주에 입단하며 K리그 무대를 밟은 그는 2013년 수원에 둥지를 튼 뒤 2017시즌까지 뛰었다. 이 때 염기훈과 환상적인 조합을 이뤘다. 산토스는 이 기간 염기훈과 함께 17골을 만들었다. 산토스에 이어 염기훈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동료는 스테보(6골), 박희주, 권창훈(이상 5골) 등이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ACL 상반기 일정 올스톱…대회 ‘홈&어웨이 원칙’ 전면수정 불가피

답 없는 ACL, ‘클럽월드컵’처럼 치러라?

하반기엔 자국리그 소화도 힘들 판
결승까지 10G 이상 원정 왕복 무리
“특정 지역에서 대회 소화” 대안 부상
“충분히 검토할만하다” 긍정적 평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최근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국제대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과 함께 가장 먼저 유란을 맞은 것은 아시아의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스리그(ACL)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창궐한 중국 클럽들은 아직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했고, 나머지 팀들도 2월 조별리그 1~2경기씩만 소화했을 뿐 대부분의 경기가 중단됐다. K리그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챔피언 전북 현대와 FA컵 우승 팀 수원 삼성, 리그 2·3위인 울산 현대와 FC서울이 출전했다.

AFC는 3~4월 일정을 5~6월 이후로 옮기는 방안을 가장 먼저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선 다음달 재개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등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의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AFC는 새로운 일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보고, 최소 7월 이후 재개하자는 밑그림만 내놓을 뿐이다. 올 시즌 ACL은 6월까지 예선을 마친 뒤 8월 16강 라운드를 시작으로 녹다운 토너먼트에 돌입하려 했으나 이제 전면수정이 불가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ACL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 수 있을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월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수원 삼성-빗셀 고베의 ACL 조별리그 경기 장면.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하다.

현 시점에서 기존 방식의 대회 진행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ACL은 홈&어웨이 경기를 원칙으로 삼는다. 조별리그 6경기를 치르고, 모든 토너먼트 라운드도 2경기씩 펼친다.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자국리그를 소화하는 것도 벅거운데, 결승까지 10경기 이상을 적자를 오가며 치르는, 그것도 하반기에 모든 스케줄이 쏠린 상황은 누구에게도 답감지 않다. 특히 월드컵 예선을 비롯한 각종 A매치들이 최소 9월 이후로 잡혀있어

전력의 풀가동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AFC 내부에서도 이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축구계 일각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언급한다. 대회 진행을 결정했을 때 연중 스케줄을 포기하고 올해에 한해 특정 지역에서 대회를 전부 소화하는 패턴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처럼 단기간 내 대회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다. 아시아축구에 정통한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다. 앞서 패배를 안은 팀은 플레이

오프(PO)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대회를 시작하면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출전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대부분 하늘길에 막혀있고, 설사 풀려도 각국 선수단의 입국을 선포 허용할 지역을 찾는 것도 어렵다. 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가장 기본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ACL이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 ‘5월초 개막’이 쉽지 않은 이유

개막 의결 후 준비기간 ‘최소 2주이상’ 원칙
연맹 “19일 정부 대책 후 이사회 날짜 결정”

K리그1·2 선수들은 팀 훈련을 하면서 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시점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 몇몇 팀은 훈련량을 줄이거나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그 개막 시점을 논의하고 의결해야 할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개최 일자는 여전히 미정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여전히 국가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개막 시기를 확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6일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19일 이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발표를 지켜보면서 이사회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

단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따라 K리그의 5월초 개막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리그 개막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직후 개막일을 재결정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원칙을 정해놓았다. 각 팀이 정상적인 개막 준비가 가능하도록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별도로 주기로 했다. 선수단뿐 아니라 구단 프런트들도 리그 개막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개최될 리그를 개막하기로 의결하면 개막전은 최소 2주 뒤에 열려야 한다.

이사회는 이달 20일 이후에나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5월초 개막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다. 프로스포츠 흥행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프로축구 경기가 개최되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최용성 기자 gtyong@donga.com

“최고의 GK 신화용…300mm 발로 실점인 볼도 막는다”

K리그 리빙 레전드 ‘마이트용 더 베스트’

Ⓜ 포항 김광석

최고의 MF듀엣은 김기동-파바레스
좌우풀백엔 들소 같은 신광훈·최효진



김광석

포항 스틸러스의 베테랑 수비수 김광석(37)은 K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로 통한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했지만 그라운드 안팎에서 늘 헌신하며 모든 것을 쏟았다. 그런 그가 충성한 팀은 오직 하나, 포항이다.

2002년 연습생 신분으로 포항의 검붉은 유니폼을 입은 그는 2003년 프로에 데뷔해 군복무 기간(2005~2006년)만 제외하고 줄곧 ‘강철군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프로 통산성적은 382경기, 10골·5도움.

김광석이 기억하는 최고의 사령관은 김

기동(포항 감독)이다. 500경기 이상 출전한 그가 다양한 종류의 킥을 구사하고, 경기 흐름을 조율할 때 포항이 위력적이었다고 회상한다. 친한 선·후배는 사제의 연을 맺고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김기동의 파트너도 중요하다. 파바레스(브라질)다. “드리블의 대가다. 접착제를 바른 듯 볼과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드리블과 패스가 명품”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공격수로는 데닐손(브라질)을 꼽았다. 사실 그의 K리그 경력은 길지 않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불과하다. 포항과는 2008년부터 두 시즌만 동행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렬했다. ‘포항 맨’으로 뽀 2년간 공격 포인트는 16골·9도움이지만 많은 찬스를

열어줘 에이스의 역량을 과시했다. “데닐손이 있는 한, 득점 기회가 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다.”

포항 최고의 워 포워드로는 모파와 김승대(강원FC)를 선정했다. 김광석은 “원발이 좋은 모파가 치고 달리면 상대 수비가 최소들은 따라붙다가 전부 나가떨어졌다. 순간적인 움직임과 공간 침투, 라인 파괴에 능한(김)승대도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했다.

중앙 미드필더는 황지수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스틸야드를 누빈 그가 전 이탈리아국가대표 가투소를 연상시키는 플레이로 1차 저지에 나서면 좀처럼 빈틈이 보이지 않았단다.

300mm의 엄청난 발 사이즈로 작은 체격을 보완한 골키퍼 신화용(전 수원 삼성)을 “누가 봐도 실점인 볼을 막는다”며 칭찬한 김광석은 포백수비 중앙에는 자신과 황재원(은퇴)을 세웠다. 그리고 흥미로운 존재를 곁들였다. (황)재원이 형이 공중

●김광석이 본 포항 스틸러스 역대 최고의 베스트11



에 뜨면 자장면을 한 그릇 먹고 내려왔다.” 긴 체공시간으로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얘기다.

좌우 풀백에는 베테랑 최효진(전남 드래곤즈)과 신광훈(강원)을 선정했다. “사이드에서 뛰면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공격 성향이 강했다(최효진). 몸이 야기처럼 하얏고 통통한데 힘이 장사다. 늘 전투적인 들소의 인상이다(신광훈).”

남창현 기자